

추석가정예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찬송가 478(통78)장 참 아름다워라--- 다 같이

기도 ----- 말은 이

성경봉독 ----시편 103편 2~5절[구약 p.876]----- 인도자

-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설 교 -----은택의 추석----- 인도자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서늘한 날과 가을의 풍성함을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도 많았는데 그 행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하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꺼내어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면서 추석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을 추수하는 계절에 누구나 느끼는 행복일 것입니다. 이런 추수의 행복은 전 세계에 다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일본은 양력 8월 15일,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처럼 음력으로 8월 15일에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11월 초의 토요일에 우리나라처럼 햇곡식과 햇과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추석은 본래 오랜 전쟁의 역사 동안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날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던 영국의 신앙인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석과 같은 날은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역사와 생활에 깊이 연관된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수장’(收藏)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추수를 축하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 정서입니다.

추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는 보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 분쟁 지역의 내전 같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대치중인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듯 보여도 항상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거나, 만났더라도 극복했거나, 지금 이겨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이겨온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2절에서는 ‘은택’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게물’이라는 이 단어는 ‘보답’이나 ‘보응’같은 대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것의 열매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게물, 은택입니다.

무게가 100kg에 이르는 슈퍼 호박을 키우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보다 무거운 엄청난 호박을 키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주차장보다 넓은 밭에 1m 이상 땅을 파고 그 속에 거름을 가득 넣어, 딱 한 그루의 호박 줄기에 한 개만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은 없지만 큰 호박을 거두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하는 모든 일이 그 슈퍼 호박처럼 반드시 열매 맺는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슈퍼 호박처럼 특별하게 대해 주신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은택’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 도 ----- 인도자
찬 송 -찬송가 487(통535)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교제>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의 성실한 삶에 대해 열매를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혹시 아쉬운 점은 없는지 대화해 봅시다. 특별히 위기나 고난을 겪고 있는 가족은 위로하고, 잘 이겨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나누어 봅시다.

